노을 명소로 유명한 신창리의 구불구불 길게 늘어진 도로를 따라 드라이브도 하고 걷고, 자전거를 타고 여행중에 잠시 쉬어가는 편안한 공간을 찾는 여행객들이라면 산토리니를 떠올리게 하는 파란색의 문이 인상적인 이곳을 지나칠 수 없을 것입니다.

해안도로를 따라 풍력발전기가 쉴새없이 돌아갈 만큼 바람이 많은 곳이라 “파도”와 “바람”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파람이라는 카페이름도 역시 쉽게 잊을 수 없고요.

"10여년전 출장길에 제주를 방문했다가 문득 제주에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. 그 당시에는 매우 한적한 해안도로 였던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고 제주도내 여러카페 매장에 원두납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저조차도 이렇게 오랜시간 이곳에 머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.

이곳에서 와이프를 만났고 딸 아이가 태어났고 그리고 지금은 세상을 떠난 반려견 벤과의 수많은 추억이 고스란히 묻어있어요. 한자리에 오랜시간 카페영업을 하다보니 매해마다 또는 계절마다 찾아주시는 손님들도 계시고, 총각이었던 손님이 아이와 함께 오랜만에 찾아주시기도 하는데, 서로가 참 반가워하죠. 그럴때마다 기쁘고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. 영원할 순 없지만 좋은 추억을 간직한 공간이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주기 바라는 것 처럼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의 작은 추억들을 간직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. "

카페파람
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신창리 1353-1
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해안로 470

매일 10:00 ~ 20:00

매주 목요일은 정기휴무

010-8520-0702

우리가게의 특별한 점

• 신선한 원두와 재료로 만든 맛있는 음료

• 해질녘 가장 멋진 노을 즐길 수 있는 장소

• 한겨울엔 낭만가득 벽난로에 불을 지펴요

베스트 추천 메뉴

• 100%동물성 생크림으로 만든 아인슈페너

• 한라봉과육이 그대로 들어간 한라봉에이드

• 당근케이크와 직접 구운 다양한 디저트

알아두면 좋은 사항

•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카페입니다.

• 아이들도 이용 가능합니다.

• 매주 목요일은 휴무입니다.